

〈제 652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 광주·전남앓사랑 Honors Card의 후속작 선보여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광주·전남앓사랑 Honors V2 Card'를 출시하며 지역밀착경영에 박차를 가했다.

‘광주·전남앓사랑 Honors V2 Card’는 송종욱 광주은행장 취임 후 지역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첫 상품으로 선보인 ‘광주·전남앓사랑 Honors Card’에 프리미엄 서비스를 더해 리뉴얼했다.

지난 2018년에 출시해 3주만에 1천좌, 5개월만에 5천좌의 판매고를 돌파하며 뜨거운 호응을 얻은 ‘광주·전남앓사랑 Honors Card’에 바우처·포인트 적립·여가생활·포인트 전환·기부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대폭 확대시켰다.

금호타이어

◆ 고객만족도 17년 연속 1위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주관한 ‘2021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이하 KCSI, Kore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 조사에서 승용차타이어 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KCSI는 국내 대표 고객만족 지수로, 산업 특성이 반영된 전반적 만족도, 요소 종합 만족도, 재이용·구매 의향을 기준으로 한다.

금호타이어는 승용차타이어 부문에서 종합 순위 점수 83.8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승용차타이어 산업 전반에 대한 고객만족도 점수인 82.9점보다 높은 점수로, 이번 조사에서 금호타이어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회사의 제품 및 서비스, 이미지 요소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요소종합

만족도’와 ‘재구입 의향 평가’에서 호평을 받았다.

보해양조

◆ 지역문화예술 지원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는 6일 광주 궁동에 위치한 예린소극장에서 소극장협회 광주지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광주 소극장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기로 했다.

올해로 24회째 열리는 광주 소극장축제는 10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광주 소재 9개 극장에서 진행된다. 광주 상무지구 기분좋은극장을 비롯해서 극단예린소극장,

광주아트홀, 예술극장 통, 씨어터 연바람, 공연일번지, 문예정터, 민들레소극장, 지니아트홀 등 300석 이하의 소극장에서 열린다.

보해는 지난 2017년부터 지역기업으로서 광주에서 활동 중인 연극인들을 응원하고 그들이 설 수 있는 무대를 지켜 내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 역시 지역 내 공연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업무협약에 나서게 됐다.

해양에너지

◆ ESG위원회 출범



해양에너지(사장 김형순)는 지난 5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강화를 위한 “해양에너지 ESG 위원회”의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은 ESG 위원과 해양에너지 주주사인 맥쿼리인프라 임원, 해양에너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SG위원회는 당연위원의 회사 경영진(7명)과 위촉위원의 기관, 학계, 시민단체, 재계, 법조계, 언론 등 외부 전문가(15명)로 총 2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촉기간은 2년이다.

해양에너지는 금년 7월 상장공모펀드인 맥쿼리인프라가 지분 100%를 인수하고 ESG 경영을 중시하면서, 금번 내/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ESG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위원회 역할은 회사 발전 정책 제언 및 경영전반에 대한 자문과 사회공헌활동의 심의·의결 역할을 하게 된다.

< 알 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정 열 총무팀장
- e-mail : gjef3425@naver.com

II. 광주경충 소식

<광주경충 『2021년 9기 광주청년일경험드림(Dream)사업-기업형』 참여 드림청년 “51.6% 취업” >



본회(회장 김봉길)는 2021년『광주청년일경험드림(Dream)-기업형』9기를 지난 7월 말일까지 완료했다. 9기 기업형에 참여한 드림청년 150명 중 9기 시범사업인 5개월 추가연장 근무에 참여하는 55명 청년을 제외한 95명 중, 현재 49명의 청년이 기존 일경험 드림터 및 타기업으로 취업하여 51.6%의 취업률을 달성했다.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 시작, 2021년 상반기까지 총 3,761명의 광주지역 청년이 참여한 청년일자리 대표 사업이다. 광주경충은 2019년 사업 참여 후, 2021년 상반기까지 605명의 청년이 참여, 251명의 청년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에 참여하는 드림청년은 5개월동안 주 25시간의 탄력근무를 하며,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기준 인건비와 직무역량강화교육, 진로상담, 네트워킹 모듬활동을 통한 직무 및 기업탐색의 기회를 갖는다.

지역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기업에는 적합한 인재발굴 및 인재양성으로 구인비용 절감과 고용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 10기는 8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중장년센터 제34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



본회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지난 6일 광산구 하남 혁신지원센터 2층 대강의실에서 제34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재직자과정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해양에너지 퇴직 예정인 재직자를 대상으로 일 중심의 경력설계를 할 수 있도록 총 8시간에 걸쳐 교육을 제공했으며, 금번 참여한 인원 7명 모두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사무국 일지(10.4 ~ 10.8)

10.6 (수)	● 중장년센터 제34회 생애경력설계 재직자과정 운영	10.8 (금)	● 제1532회 금요조찬포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온라인 설명회
-------------	------------------------------	-------------	--

〈제1532회 금요조찬포럼〉

강사: 이동근(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주제: 최근 경제·경영 현황과 이슈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김봉길)는 10월8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을 초청 <최근 경제·경영 현황과 이슈>란 주제로 제1532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코로나로 인해 글로벌 경기는 크게 위축되었으나 백신 보급과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 등으로 완만한 회복 흐름이 시현되는 가운데도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은 대규모 R&D투자를 통한 인프라 시설 재건과 인적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채권 매입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시작 예정이며, 제로 금리의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은 반도체 및 디지털 기술 등 핵심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나 기업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으며 최근 전력난 심화로 실물지표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

한국경제는 백신접종 확대와 수출 호조 등으로 견실한 회복흐름이 시현되고, 소비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설비투자는 기계류를 중심으로 개선되고, 주택가격 오름세와 분양경기 호조로 하반기 경기 회복이 기대되고 있다. 수출은 반도체 등 주력 품목 중심의 수출 경기가 개선되고, 고용은 신규 취업자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60세 이상의 취업자는 증가하고 30대는 감소, 숙박음식 도소매 같은 대면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고용부진은 지속되고 있다. 물가는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환율은 최근 원/달러환율이 미국 경기부양정책의 상승(가치하락) 압력으로 작용되어 주요국 통화는 강세 전망이나 코로나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급락했으나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원유수요 급증과 산유국 증산계획 지연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가 시현되고 있다.

한국 경제.산업의 과제로는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고, 주력제조업 경쟁력의 약화, 신산업의 부재, 기업경영 환경의 악화, 경직된 노동시장과 과도한 산업.환경 규제,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를 들 수 있다. 코로나 이후 패러다임 변화와 주요 이슈로는 탈세계화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며 비대면 경제의 부상, 친환경 정책의 양면성, 장기간 지속된 미·중간 갈등 조정국면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른 대응 전략으로 기업의 역할은 핵심기술 개발, R&D투자확대, 우수인력 확보, 신사업 진출 및 비즈니스 모델 혁신, 혁신 기술산업 서비스 산업 진출 강화, 수출입시장의 다변화, 코로나 이후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 적응, ESG경영에 대비 등을 들 수 있다.



1. 노사 동향

■ 고용부 장관,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 불법행위 지적

-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가 진행 중(10. 1 ~ 21)인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10. 5 환경부, 10. 6 고용부 국정감사를 진행

※ 환노위 국정감사 일정 : 10. 5(환경부), 10. 6(고용부), 10. 12(경사노위 등 고용부 소속기관), 10. 21(고용부 종합국정감사)

-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국정감사(10. 6)에서 ▲민주노총의 10. 20 총파업 요구사항인 국방예산 삭감, 기간산업 국유화 등은 정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에 위배돼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민주노총 일부 조합원의 사업장 불법점거,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 표명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화물연대의 SPC 화물기사 폭행, 현대제철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업장 점거와 관련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노동조합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사용을 둘러싼 노조간의 갈등은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발언

■ 고용부, 산업안전 감독을 위한 활동 지속

-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를 개최해 ▲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 운영방안, ▲정책 추진현황, ▲산업안전 감독 계획 등을 논의(10. 7)

※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 1. 27 시행 예정

※ 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과 함께 산업안전 감독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영계, 노동계,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10. 7 처음 개최

- 고용부는 ▲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의 정기적 운영, ▲현장점검의 날 지속 운영,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지역 선별 및 집중 관리, ▲시정조치 불복 시 사법조치 시행 등을 예정

※ 고용부는 2021. 7. 14부터 격주 수요일마다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해 산업안전점검 실시

Ⅲ. 노사 및 법제동향

-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안전 감독이 선제적·예방적 기능을 해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바꿀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을 강조
- 경총은 동 회의에 참석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경영계 의견을 제시
 - 경총은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이 낮은 직업성 질병(뇌심혈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 발생 등을 이유로 정기감독 대상을 선정하기보다는 법 위반이 명확하고 예방 가능한 재해 중심으로 감독대상 선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 표명
 - 또한, 정부가 산업안전감독과 관련해 적발 중심의 감독을 지양하고, 사업주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지도·지원 해야한다는 입장

■ 민주노총, 10. 20 총파업 선포

- 민주노총은 10. 20 총파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10. 7)
 - ※ 동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진행
 - 민주노총은 총파업 요구사항으로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개정,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국가보장, ▲주택·의료·교육·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등을 주장
 - 민주노총은 정부가 민주노총의 집회에만 엄격한 방역기준을 적용한다고 주장하며,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집회의 자유와 방역의 충돌 문제 등에 관한 TV토론을 제안

[참고] 민주노총 10. 20 총파업 요구사항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비정규직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제법, 파견법 폐지 ▲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동법 전면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성 인정 ▲ 초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부여 ▲ 교원, 공무원 노동3권 보장 ▲ 교섭창구단일화 폐지

Ⅲ. 노사 및 법제동향

분야	주요 내용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국가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에너지 등 산업전환시 해고금지 ▲ 재난시기 해고금지 ▲ 국가기간산업 국유화
주택·의료·교육·돌봄· 교통 공공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의료·교육·돌봄의 국가책임 및 무상화 ▲ 공공주택 확대, 공공의료확대, 대학무상교육 등

- 경총은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민주노총이 정치적 이유를 내세워 총파업을 반복하는 구태를 중단하고 사회의 책임있는 주체로써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할 것을 촉구
- 또한, 경총은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발생하는 불법에 대해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법치주의를 확립시켜줄 것을 당부

2. 법제 동향

■ 이수진 의원(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9.29)

- (발의 이유)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안전 유지와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 전자적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증가
 - 그런데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해 근로자가 알지 못할뿐만 아니라 감시 설비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오남용에 관한 규제가 없어 노동 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과 사생활 및 인격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
- (주요 내용) 사용자가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전자적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업장 내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감시 설비의 유형,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하는 정보 및 그 수집·이용 목적을 알리도록 하며,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금지

■ 윤미향 의원(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9.30)

- (발의 이유) 채용과정에서 성희롱이나 차별적 질문 등을 통한 정보의 수집은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초심사자료의 기재나 입증자료의 수집과정 외에도 채용의 모든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발생
 - 이러한 사례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련 없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 제기
- (주요 내용) 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채용과정에 사용되는 서류의 표준양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며, 차별적 정보수집의 금지 범위를 채용과정 전반으로 확대하고 금지 항목에 성별, 용모, 신체적 조건 등과 연령, 혼인계획, 노동조합에 대한 견해 등을 추가

■ 임종성 의원(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0.1)

Ⅲ. 노사 및 법제동향

- (발의 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 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 충족 필요
 - 이에 오프라인에서 복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물론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다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 발생
- (주요 내용) 보다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이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적용·징수 체계와 급여·보상 제도를 마련